

주간기도정보

2025. 2. 11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선교 현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교회 개척’ 아닌 ‘이단 문제’

남반구 중심으로 신천지·구원파·하나님의교회 등 활개



남아메리카 페루에서 사역하는 A선교사는 최근 동료 선교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구원파 계열의 기쁜소식선교회가 페루 기독교총연합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것. 이에 A선교사를 비롯한 한인 선교사회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회원 제명에 나섰다.

한 선교교육단체의 B간사는 인도를 방문해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현지인 사역책임자 C씨를 만났다. C씨는 자신이 미국 유학 시절 한국인이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공부했다며 B간사를 반겼지만, 알고 보니 그는 하나님의교회

신학교 출신이었다.

이단·사이비가 해외에서 활개를 치면서 전 세계 한국발 이단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몽골은 기독교인 비율이 1.2%(10만 명)에 불과한데, 이중 절반 이상이 신천지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는 한인 선교사들에게 ‘K이단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한국발 이단·사이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문화 사역으로 포장해 현지인들에게 접근한 후 미혹하는 전략적 위장 포교를 쓰고 있다.

탄자니아 김 모 선교사는 “정통 복음주의 교단과 선교 단체들은 대부분 협력 사역이 부재한 반면 이단들은 전문성과 재정을 바탕으로 일사불란하게 포교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단체들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과거부터 범선교계 차원의 이단 공동대응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해왔다. 이단들의 포교 공세를 뛰어넘기 위해선 한국교회의 결집과 선교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교파, 개교회를 넘어 함께 해외 선교 전략을 논의하며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교회들이 소규모다 보니 이단 교육이나 세미나를 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연합기관 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최근 선교계는 선교지 이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섰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는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KWMA 세미나실에서 맺었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지인 이단 전문가 양성과 이단 상담 지원, 이단 세미나 개최 등 선교지 이단 문제 대응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각국 기독교총연합기관에 이단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이단 자료집과 문서 등도 배포할 계획이다.

강대흥 KWMA 사무총장은 “이단으로 인한 선교사들의 피해사례와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협력하게 돼 의미가 깊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가 KWMA 내 ‘선교지 이단 대책 실행위원회’를 신설하고 더 긴밀한 협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출처: 기독교일보, 데일리굿뉴스 종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린도후서 11:2-3)

하나님, 이단 사이비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지에서도 활개를 쳐 대응책이 요구될 만큼 많은 영혼이 미혹되고 있다는 소식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거짓을 좇도록 미혹하는 모든 사탄의 속임을 파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분연히 일어나 어둠의 영에 대적하여 기도로 싸우며 결코 이단이 흉내 낼 수 없는 복음 진리로 굳게 서게 하소서. 사람에게서 나온 거짓 복음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흥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단장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 되게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송금받았다가 단속됐지만 돈 주고 풀려나...‘뇌물 만능’ 여전

송금 브로커, 작년에 뇌물로 쓴 돈이 무려 한화 추산 약 4,000만 원



최근 함경북도에서 탈북민이 보내온 돈을 받았다가 단속된 주민이 거액의 돈을 주고 풀려나는 일이 있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청진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설을 맞아 탈북한 가족으로부터 송금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역전 안전원들의 검문에 걸려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이어 소식통은 “몸수색 과정에서 3만 위안(한화 약 600만 원)이 나왔는데 탈북민 가족이 있는 터라 거주 지역 안전부내 넘겨졌다”며 “그 사이 그녀의 가족들이 온 집안의 재산을 털어 6만 위안을 뇌물로 바쳐 결국 풀려나게 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이 전해 온 이번 사건은 북한 사회가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뇌물 만능 사회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주는 사례다. 북한에서는 국경 지역으로 가기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이 매우 어렵고, 특히 탈북 가족이 있는 경우 더욱 제한적이다. 여행증명서를 받아도 도로 곳곳의 초소에서 반복적인 검문과 검열로 이동이 통제된다.

그러나 뇌물을 주면 여행증명서 발급, 초소 통과, 심지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도 가능하다. 사법기관 관계자들도 생계가 어려워 뇌물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수록 주민들은 더 많은 뇌물을 요구받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결국 주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불법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이 강화된 단속과 지속적인 뇌물 요구에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에 걸리면 막대한 돈을 상납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일부 주민들은 빛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신의주시에서 중국 손전화(휴대전화)를 이용해 돈벌이하는 주민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돈보다 뇌물 지출로 나간 돈이 더 많아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는 신의주시 주민 A씨는 지난 한 해 동안 뇌물로만 무려 20만 위안(한화 약 4,000만 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두 차례 단속기관에 적발된 그는 각각 9만 위안(약 1,800만 원), 6만 위안(약 1,200만 원)을 즉시 뇌물로 바쳐 이행되는 것을 면했고, 그 외에 이른바 ‘숙제’라 불리는 단속기관 일꾼들의 금전적 요구를 들어주는 데 6만 위안을 썼다. 이로 인해 그는 현재 8만 위안(약 1,600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씨 만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는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로의 상황을 겪었다. 소식통은 “단속 강화는 주민들의 불법적인 경제 활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심각한 부패를 초래하고 주민들을 경제적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독일에 위치한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1월에 공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평가대상 180개국 중 171위로 최하위권으로 100점 만점에 17점을 기록했다(출처: 데일리NK,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시편 111:7-8,10)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신명기 1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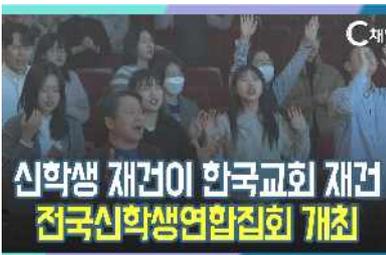
하나님, 뇌물 만능 사회라고 할 만큼 모든 영역에 뇌물이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 보이는 북한의 소식에 주의 공의를 구합니다. 강화된 단속을 빙자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정부 관료들을 꾸짖어 주시고 여호와와 법도가 회복되어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엄위하신 주의 훈계를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탐심으로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바라지 않고 진실로 선을 행하는 북한 되게 하소서. 가난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돌봐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북한교회를 통해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배워 주의 계명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 세워지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전국 신학생,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세우자”

전국신학대학교학생연합(KATS), 지난 3일 제2회 ‘전국신학생연합집회’ 개최



전국신학대학교학생연합(KATS)이 3일 서울 서초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재건’(再建)을 주제로 제2회 전국신학생연합집회를 개최했다. KATS는 23개 신학교의 총학생회 및 원우회로 구성된 연합기관으로, 이번 집회에는 23개교 신학생과 신대원생들이 참석했다.

권민 KATS 총괄 전도사는 “한국교회는 국가적 위기 때마다 수백만 명이 모여 기도하는 등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연합해왔지만 역설적이게 정치적 이념과 교리에 매몰돼 분열하는 일도 잦았다”면서 “신학생들이 먼저 회개함으로 연합해 한국교회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개회예배에서는 백석대 신학대학원장 임석순 목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임석순 목사는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 팔아버린 것처럼 받은 사명을 쉽게 가볍게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신의 목회 경험을 나누면서 임석순 목사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할 텐데 지금부터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려선 안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온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이라면서 “학문만을 위한 신학이 되지 않아야 한다. 힘들다고 해서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두 번째 부르심으로’를 주제로 설교한 백석대학교회 광인섭 목사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던 것처럼,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심을 생각하자”며, “여전히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가 목회자로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예수 충만에 있음을 잊지 말자”고 도전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와 다음세대, 신학교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학생들은 혼란과 분열로 무너진 이 땅과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자신들이 먼저 회개할 때 진정한 연합과 회복이 일어날 것을 고백하며,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민족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다짐했다.

목원대 신학대학 학생회장인 김민혁(24) 군은 “혼란한 시국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신학생이 뭉쳐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으로 대전에서 한걸음에 달려왔다”면서 “지속적으로 연합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신학대 진학을 희망하는 이재아(17) 양은 “지난해 여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순응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결단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출처: 아이굿뉴스, 데일리굿뉴스 종합).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느헤미야 2:17-18)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브리서 3:1)

하나님, 분열의 시대 속 교회마저 갈피를 잃고 사분오열되고 있는 이때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신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다 같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합심으로 기도한 이 시간이 이 땅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연합 기도의 물결이 신학교를 넘어 대학 캠퍼스로 이어지게 하시고 복음과 기도를 전부 된 가치로 붙드는 청년들이 더욱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혼란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여 간구와 도고로 위기를 이기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한국교회를 넘어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연합하여 달려가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